

## 주요 내용

### 국내 실물 부문

#### 산업 생산 : 재고 축적을 위한 생산 증가세 전망

- (동향)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로 8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전망) 3/4분기 중에도 기업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정 재고 축적을 위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산업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고용 : 하반기에도 고실업 지속

- (동향) 6월 중 실업률은 경기 회복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한 6.2%를 기록
- (전망) 향후 기업들의 인력 수요 증가로 실업률 하락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하락 폭은 상반기에 비해 대폭 축소될 전망

#### 소비 : 소비심리 확산에 기인한 증가세 지속

- (동향) 경기 회복 분위기가 정착됨에 따라 민간의 소비 심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도소매 판매는 6월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전망) 3/4분기 이후에도 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실업 상황이 계속되는 한 과열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 투자 : 건설투자 회복 지연

- (동향) 6월 중 국내기계수주를 비롯한 설비투자 관련 지표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국내건설수주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는 등 건설투자 관련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전망) 경기 회복과 수출 확대 등에 따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로 보이나, 건설투자는 전년도 수주 부진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4/4분기에 이르러서야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 **대외거래 :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 흑자 축소**

- (동향) 7월 중 수출은 동남아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18.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최근의 설비투자 및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 38.3%의 급증세를 보였음
- (전망) 아시아 경제 회복, 엔화 강세, 국내 임금 및 금리의 안정 등을 바탕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수입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폭증세를 억제할 만한 요인이 없어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물가 : 상승세로 반전 전망**

- (동향) 7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출하 증가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공업제품과 집세도 내려 3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를 나타냄
- (전망) 8월 중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환율·임금·유가 등 비용 요인의 상승, 수해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이 예상되나,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산업 생산 : 재고 축적을 위한 생산 증가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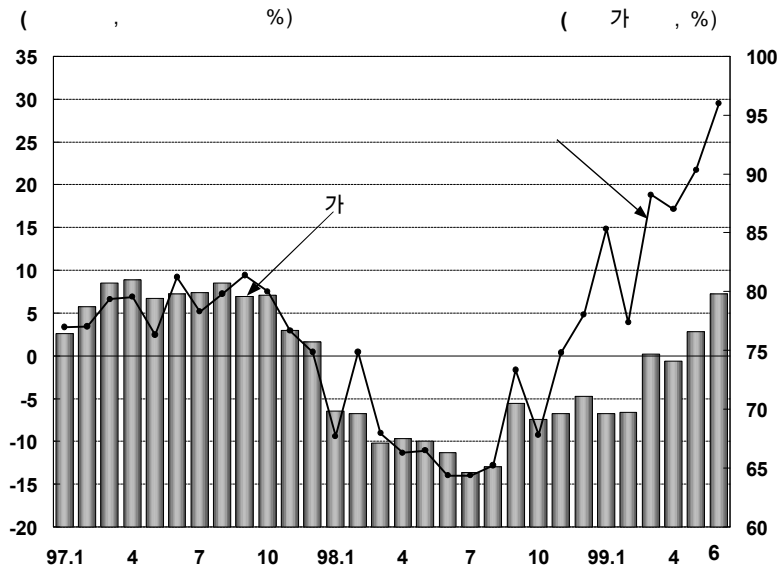
이 보 성

6월 중 산업 생산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로 8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3/4분기 중에도 기업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고 축적을 위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산업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동향】

- 6월 중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에 비해 29.5% 증가하여 1988년 8월 29.7%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98년에 비해 조업일수가 2일 증가한 것을 감안, 이를 제외한 경우 2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6월말 현재 산업생산지수는 125.4(1995=100 기준)를 기록, 외환위기 이전 수준(110~120)을 상회함

< 최근 생산 동향 >



- 이처럼 산업 생산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물량 기준)가 지속되고 내수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99년 1/4분기 들어 8.8%의 증가세로 돌아섰던 내수 출하는 6월 중 27.3%의 증가율을 기록,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98년 연간 28.5%의 증가율을 보이던 99년 1/4분기 중 21.9%의 증가율을 기록,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던 수출 출하도 5월과 6월에 각각 28.5%와 3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감

## 【전망】

- 3/4분기 중에도 설비 투자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세 및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97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재고지수(계절조정치)가 5월 중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월에도 1.3포인트 상승한 100.5를 기록,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이는 기업들이 현재 판매만을 위한 생산에서 향후 판매를 위한 재고 축적용 생산을 증가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재고 축적을 위한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생산 증가세의 지속으로 99년 하반기 중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할 전망
  - 그러나 수입 증가 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상반기 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GDP 성장률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e)	99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5.5	-5.8	7.3	6.8	7.1

(bslee@hri.co.kr ☎724-4035)

## 고용 : 하반기에도 고실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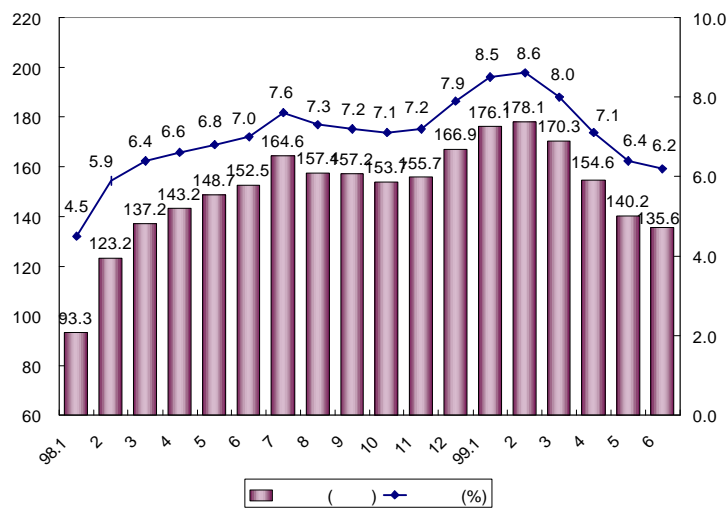
이 보 성

6월 중 실업률은 경기 회복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한 6.2%를 기록함. 향후 기업들의 인력 수요 증가로 실업률 하락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하락 폭은 상반기에 비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동향】

- 6월 중 실업률이 전월에 비해 0.2p% 떨어진 6.2%를 기록,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실업자 수는 5월에 비해 4.6만 명이 감소한 135.6만 명을 기록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각각 147만 명, 6.7%인 것으로 나타남<sup>1)</sup>

< 실업률 추이 >



-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경기 회복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1) ILO는 실업자를 계산할 때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  
는 반면 OECD는 '지난 한 달간에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하기 때  
OECD 기준 실업자가 많아지게 됨

---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취업자수는 5월에 비해 21.1만 명(1.0%)이 증가한 2,060.4만 명을 기록
- 또한 고용 구조도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5월에 비해 1.2%가 감소한 반면, 1개월~1년인 임시근로자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각각 1.2%와 1.1% 늘어 고용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도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7.6만 명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6.9만 명이 증가함

**【전망】**

- 경기 상승에 따른 생산 증가로 기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업률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구직난 해소로 그동안 실망노동자화 되어있던 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지난 5월에 비해 0.4% 포인트가 높아졌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6월의 63.0%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으로 향후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추가로 이루어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임
- 99년 중 실업률은 하반기 6.0%, 연간 6.8% 전망됨

**< 99년 실업률 전망 >**

(%)

	97년	98년	99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실업률(기간 평균)	2.6	7.5	7.5	6.0	6.8

(bslee@hri.co.kr ☎724-4035)

## 소비 : 소비 심리 확산에 기인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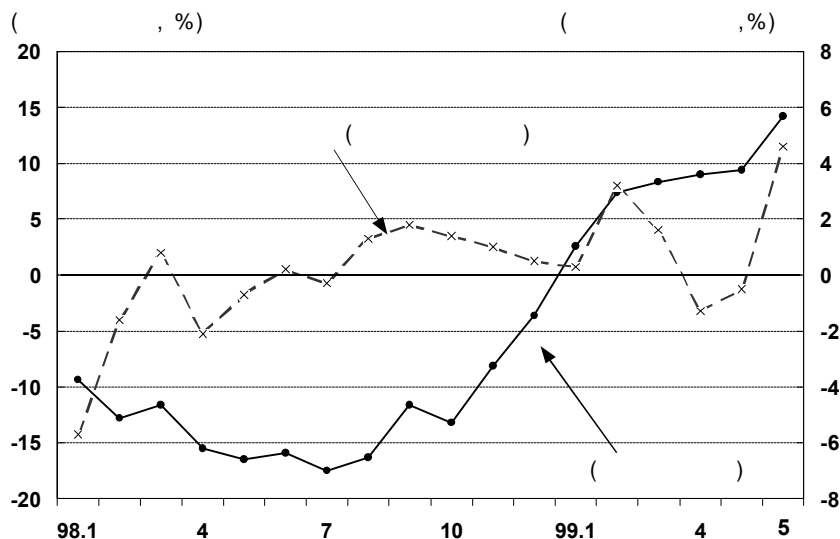
이 보 성

4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기미를 보였던 도소매 판매는 6월 들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섬. 이는 경기 회복 분위기가 정착됨에 따라 민간의 소비 심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함. 3/4분기 이후에도 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실업 상황이 계속되는 한 과열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 【동향】

- 6월 중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의 판매 신장세와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도매 및 소매 판매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4.2%의 증가율을 기록
- 99년 6월 중 자동차 판매는 신모델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도매업 및 소매업도 각각 13.7%와 10.0%의 증가율을 기록함
-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전월대비(계절조정) 증가율도 4.6%의 증가세로 반전됨

### < 최근 소비 동향 >



- 최근의 소비 회복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의 소비 심리 확산에 기인하는 바

## 가 큰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평가 지수가 100.6을 나타내 현재 가계 소비가 6개월 전보다 늘어난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후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104.8을 기록,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망】

- 3/4분기 이후에도 소비 심리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과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에서의 자산 소득 증가가 소비 심리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소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고실업의 지속이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하반기 중에도 6%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고용 불안 심리가 상존하는 한 본격적인 소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상반기 소비 증가의 주요인이었던 이연소비가 상반기 중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수준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하반기 7.4%, 연간 7.2%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 < 99년 소비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	9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최종소비지출	3.5	-12.6	5.9	6.5	6.2
민간소비	3.1	-13.9	7.0	7.4	7.2

(bslee@hri.co.kr 8724-4035)



## 투자 : 건설투자 회복 지연

전 민 규

99년 7월 중에도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의 감소세로 반전되어 최근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절대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수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동향】

- 99년 6월 중 설비투자는 연초 이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건설투자는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음
- 6월 중 국내기계수주는 51.1%, 기계류수입액은 46.9%, 기계류내수출하는 61.2% 증가하는 등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의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비투자 추계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반면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여 2개월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건축허가면적도 16.8%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투자 관련 지표 추이>

(%)

	97년	98년	99년				
			1/4분기	2/4분기	4월		
					4월	5월	6월
국내기계수주	3.3	-30.5	16.9	38.5	23.6	40.5	51.1
설비투자추계지수	-6.8	-38.7	10.9	42.2	29.5	43.3	54.2
기계류수입액	-22.8	-52.9	7.9	20.2	4.2	15.0	46.9
설비용기계 내수출하	1.2	-38.0	1.0	35.4	15.7	33.2	61.2
국내건설수주	5.4	-42.5	-45.3	27.5	39.3	89.6	-6.2
건설기성액	-	-	-1.0	3.7	2.3	1.1	7.5
건축허가면적	-0.4	-55.0	-45.8	22.4	4.1	46.5	16.8

## 【전망】

- 설비투자는 향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실제 투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4분기의 국내기계수주가 38.5% 증가하는 등 설비투자의 선행 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설비 확충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 저금리 기조 유지도 투자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대우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 불안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킬 수도 있음
  - 한편, 예상 설비투자 증가율은 높으나 이는 전년의 위축에 대한 반등일 뿐 실제 설비투자 규모는 93년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지난해의 수주 부진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4분기 들어 국내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1/4분기까지의 수주 감소 여파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가 건설투자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민간 부문의 국내건설 발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투자 심리가 차츰 호전되고 있고 수주 물량 증가가 본격적 영향을 나타낼 4/4분기에는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투자 전망 >

(%)

구 분	1997	1998	1999(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총고정자본형성	-2.2	-21.1	-2.7	2.5	0.0
건설투자	2.3	-10.2	-13.3	-3.5	-8.0
설비투자	-8.7	-38.5	19.7	17.9	18.8

(mkjun@hri.co.kr ☎ 724-4015)

## 대외거래 :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 흑자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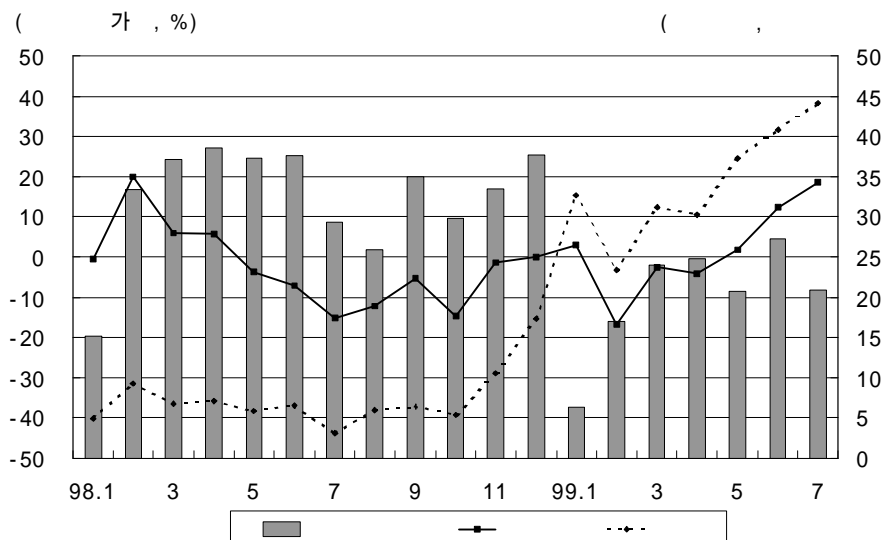
전 민 규

7월 중 수출은 아시아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은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심리 회복과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해외 경기 회복에 더하여 엔화 강세에 따라 당분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수입이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폭증세를 보여 무역 흑자는 감소될 전망이다

### 【동향】

- 99년 7월 중 수출, 수입 모두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아시아 지역의 경기 회복과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한 119.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심리 회복과 수출 확대에 따른 수출용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7월 중 수입은 38.3%의 폭증세를 나타냈음
-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8.4억 달러 감소한 20.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 수출입 추이 >



## 【전망】

- 대내외적인 여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 경기 호조 지속, 일본 및 서유럽 경기 회복 전망,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경제의 빠른 회복세, 엔고 현상,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의 대외 여건 개선으로 수출이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대내적으로는 금리, 물가, 임금 등이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대외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예상되는 환율의 하향 움직임이 수출 증가의 제약 요인이 될 전망이다
- 전년의 부진에 대한 반등, 경기 회복, 수출 증가, 원자재 재고 회복, 환율 하락 등으로 수입은 급증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경기 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 심리 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임
  -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수입의 증가세를 억제할 뚜렷한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를 크게 뛰어넘는 수입 증가 속도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할 것임
  - 이러한 수입 급증세를 감안할 때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정부 목표인 무역수지 250억 달러 흑자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수출입 전망 >

구 분	1997	1998	1999(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82	400	136	78	214
무역수지(통관기준)	-85	390	120	80	200
수출(억 달러)	1,362	1,323	663	702	1,365
(증가율, %)	(5.0)	(-2.8)	(-1.2)	(7.6)	(3.2)
수입(억 달러)	1,446	933	543	622	1,165
(증가율, %)	(-3.8)	(-35.5)	(15.1)	(35.0)	(24.9)

(mkjun@hri.co.kr ☎ 724-4015)

## 물가 : 상승세로 반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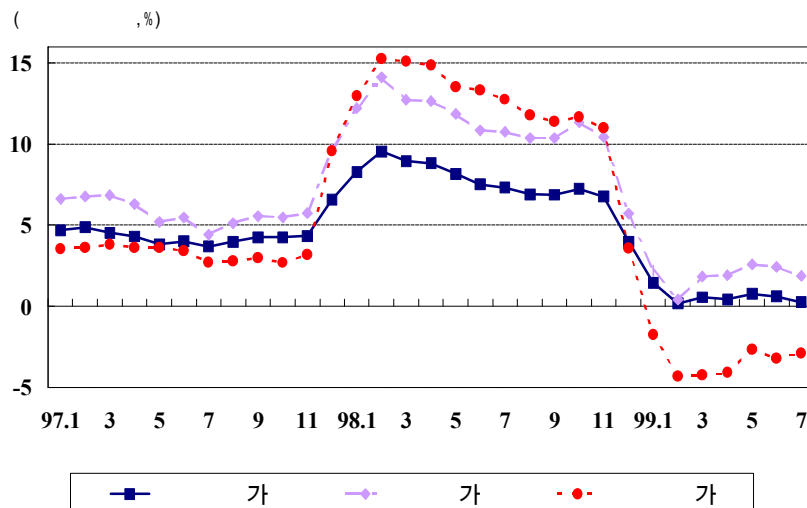
김 범 구

7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출하 증가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공업제품과 집세도 내려 3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를 나타냄. 8월 중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환율·임금·유가 등 비용요인의 상승, 수해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동향】

- (소비자물가) 농산물 출하 증가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한데 힘입어 전월대비 0.3% 하락함
  - (항목별) 공공서비스(0.1%, 이하 전월대비)는 상승하였으나, 농산물 출하 증가에 따라 농축수산물(-1.6%)이 하락하고, 공업제품(-0.1%)과 집세(-0.2%)도 내려 3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를 나타냄
  - 전년동월대비로는 0.3%, 전년동기(1~7월) 대비로는 0.6% 상승
  - (생활물가)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1.9% 상승

< 최근 물가 동향 >



- (생산자물가) 농림수산물(-0.5%)과 공산품(-0.3%)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2.9%, 전년말대비로는 -1.6% 기록

- 공산품은 수요 부진 및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었고, 농림수산물  
 품은 채소, 고실 등의 작황 호조에 힘입어 하락세를 기록함
- (가공단계별<sup>2)</sup>) 원자재(-1.6%) 및 중간재(-0.4%)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하락하였고, 최종재(-0.1%)도 일부 수입품의 가격경쟁 심화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하락하였음

### 【전망】 상승세로 반전 전망

- 빠른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환율·임금·유가 등 비용 요인의  
 상승세, 수해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8월 중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6월 중 산업생산이 29.5% 증가하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9.8%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요측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환율·임금·유가 등 비용 요인이 상반기에 비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5~7월 중 물가 하락에 크게 기여했던 농산물 가격 하락도 수해로 인해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용측 인플레이 압력도 가중되고 있음
- 그러나 초과수요 압력이 아직 그다지 높지 않으며,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 힘입어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

### < 99년 하반기중 소비자물가 전망 >

(전년동월대비, %)

	97년	98년	99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6월				
소비자물가	4.5	7.5	0.7	0.6	0.6	0.6	0.9	0.8

(bkkim@hri.co.kr ☎ 724-4016)

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가공단계별로 조사함으로써 물가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 생산자물가지수 상품부문과 수입물가지수 전부문을 모집단으로 하여 작성됨